

# ‘토크몬’, 시청률 아쉽지만 화제성으로 입증한 가능성



‘토크몬’이 12회의 시즌 대장정을 마쳤다. 2일 종영한 올리브 ‘토크몬’에서 는 최일구, 수현, 김설진, 케이윌이

## 12회 시즌 대장정 마무리...시청률 1% 맴돌아 새로운 게스트들과 솔직한 입담 화제성 입증

등장해 마지막 이야기를 내쳤다. 지난 1월 15일 첫방송한 토크몬은 토크 고수 ‘마스터’와 토크 원석 ‘몬스터’가 만나 1+1 페어플레이를 펼치는 토크쇼로, 강호동과 ‘강심장 박상혁’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 ‘설총사’에서 남다른 재미를 뽐냈던 강호동과 정용화가 MC로 봉쳐 브로맨스를 예고했다. 그러나 방

송 초반 정용화의 특례입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프로그램에도 타격을 맞았다. 결국 정용화는 미리 녹화된 편집본에서 통편집됐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희선이 스페셜 MC로 합류하면서 다시금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시청률은 1%를 맴돌 뿐이었다. 그럼에도 ‘토크몬’은 매회 예능에서는 보기 쉽지 않았던 게스트들과 솔직

한 입담으로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신미가 방송 후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감동을 안겼고, 문기비는 출연 이후 다음날까지도 연일 인기 검색어를 장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토크몬’은 강은탁, 정소영, 김연자, 이종범, 정영주, 제이블랙 등이 출연하며 신선함을 안겼다. 기획을 맡은 박상혁CP 역시 ‘제대로 된 정통 토크쇼가 없는 때 스타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또 매번 시청자들이 봐온 스타들이 아닌 새로운 열

굴들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토크몬’은 시청률 면에서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화제성 면에서는 매회 새로운 얼굴들을 예능넷별로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릴 창구 역할을 하며 소용에 집중했다. 화려하고 스케일이 커진 예능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통 토크쇼 형식을 택한 ‘토크몬’은 경쟁력 면에서는 밀려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토크몬’은 관찰예능, 버라이어티 위주의 예능 판도에서 토크쇼의 필요성을 화제성으로 입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 ‘우리가 만난 기적’, 첫 회 시청률 8.2%...쾌조의 스타트



‘우리가 만난 기적’이 1회 시청률 8.2%(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높은 시청률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2일 첫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은 과란반장한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압도, 60분을 집어삼켰다.

송현철A(김명민 분)의 사고 장면으로 오프닝을 열어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어 사고가 나긴 전, 같은 이름을 가진 송현철A와 송현철B(고창석 분)의 상반된 인생을 보여주는 구성과 한 시도 눈 뿜 수 없는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흥미를 더했다. 특히 아토(카이 분)의 실수로 운명이 뒤 바뀌어 버린 송현철A와 B의 죽음, 그리고 기적적인 송현철A의 부활까지 스피디하게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두 남자의 180도 다른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송현철A는 최연소 은행지점장의 방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보였고 가정에서도 독재적으로 행동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중화요리 전문점 만호정의 사장남이자 화목한 가정, 사람받는 남편의 표본을 보여 준 송현철B는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이들의 집안 또한 각자의 색깔이 뚜렷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기에 놓인 소원도부부 송현철A와 선혜진(김현주 분)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 달리 송현철B와 조연화(라미란 분)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풀떨어지는 다정한 모습이 대조된 것. 그중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을 위한 소신을 지킨 선혜진의 모습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에 남편, 시어머니의 등쌀을 참아가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그녀가 남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어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들의 연연과 탄탄한 극본, 빛나는 연출이 어우러진 ‘우리가 만난 기적’은 첫 회부터 시청자들을 해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뜨렸다. 김명민의 섬세한 연기와 더불어 마음을 적시는 김현주의 내면 연기가 탄성을 자아냈으며, 라미란과 고창석의 생활 밀착형 연기는 공감각지수를 상승, 3일 분방시수를 불렀다.

앞서 두 남자의 180도 다른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송현철A는 최연소 은행지점장의 방탕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보였고 가정에서도 독재적으로 행동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중화요리 전문점 만호정의 사장남이자 화목한 가정, 사람받는 남편의 표본을 보여 준 송현철B는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이들의 집안 또한 각자의 색깔이 뚜렷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기에 놓인 소원도부부 송현철A와 선혜진(김현주 분)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 달리 송현철B와 조연화(라미란 분)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풀떨어지는 다정한 모습이 대조된 것. 그중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을 위한 소신을 지킨 선혜진의 모습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에 남편, 시어머니의 등쌀을 참아가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그녀가 남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어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들의 연연과 탄탄한 극본, 빛나는 연출이 어우러진 ‘우리가 만난 기적’은 첫 회부터 시청자들을 해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뜨렸다. 김명민의 섬세한 연기와 더불어 마음을 적시는 김현주의 내면 연기가 탄성을 자아냈으며, 라미란과 고창석의 생활 밀착형 연기는 공감각지수를 상승, 3일 분방시수를 불렀다.

## 평양공연 ‘봄이 온다’, 내일 지상파 3사 통해 방송



평양에서 공연된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 5일 방송 3사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다. 1일 평양 대동강지구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공

연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가 오는 5일 밤 11시 55분 MBC, KBS, SBS 등 방송 3사를 통해서 동시간대에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조선중앙TV가 장비를 제공하고, MBC가 촬영과 기술 등 프로

그램 제작과 편집을 맡은 평양 공연 ‘봄이 온다’는 4일 북한 공연단이 돌아 온 뒤 방송 3사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방송시간이 결정된다. 방송시간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평양에서 제작해온 프로그램을 각 방송사에 맞는 송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열린 남측 예술단의 단독 공연과 3일 열린 남북 합동 무대를 모두 녹화한 뒤 협의를 거쳐 방송내용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1일 열린 남측 예술단의 공연이 전과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영화 ‘바람바람바람’ 韓영화 예매율 1위



‘바람바람바람’이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 본격적인 흥행바람 신호를 알린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진흥위원회에 통합전망에 따르면 ‘바람바람바람’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실시간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주요 예매사이트 롯데시네마에서는 전체 영화 중 예매율 1위에 올라 본격적인 흥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개봉 이후

장기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손예진, 소지섭의 로맨스 영화 지금 만나러 갑시다를 압도적으로 제쳤음은 물론,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 7년의 밤 ‘예매율까지 앞선 기록이다. 여기에 한국영화에 없던 공포 체험이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신드롬을 일으킨 ‘곤지암’ 역시 제친 성적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람바람바람’이 전매특허 말맛 코미디와 재기 발랄한 연출로 코미디 장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스물’ (2015)이

병형 감독의 신작이자, 여전히 철부지인 어른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호감 배우 이성민, 신하균, 송지효, 이엘의 신바람 코믹 케미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촌철살인 대사들에서 오는 재미가 기대감을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람바람바람이 개봉과 동시에 유쾌한 웃음바람은 물론 거센 흥행바람까지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년 경력의 자랑스러운 ‘바람’의 전설 ‘석근’과 뒤늦게 ‘바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매제 ‘봉수’, 그리고 SNS와 사랑에 빠진 ‘봉수’의 아내 ‘비영’ 앞에 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제니’가 나타나면서 견장을 수 없이 꼬이게 되는 상황을 그린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 영화 ‘바람바람바람’은 5일 개봉한다.

## “신동엽·박나래·헤리” ‘놀라운토요일’ 예능 어벤져스



tvN ‘놀라운 토요일’이 오는 7일 저녁 7시 4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출연진 8인의 매력을 전격 분석했다. ‘놀라운 토요일’은 tvN이 아쉽게 선보이는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먼저 멤버들이 전국의 시장에 있는 핫한 음식을 걸고 게임 미션을 수행하는 ‘도레미 마켓’을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코너를 후속적으로 공개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레미 마켓에서 신동엽, 박나래, 헤리, 문세운, 카, 김동현, 한해는 노래의 특정 부분을 듣고 원래 가사를 정확히 받아써야 하는 노래 받아쓰기 미션을 수행한다. 최근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같은

노래를 제각기 다르게 받아쓰며 ‘벤붕’에 빠진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돼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높인 바 있다. 3회까지 녹화가 진행된 가운데 제작진은 8인의 출연진이 가진 각각각각 매력을 전격 분석했다. 먼저 신동엽, 박나래, 문세운, 김동현은 특유의 입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 웃음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신동엽은 건반에 진행자로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나래는 아예 예능을 통해 몸매 맨 넓은 활동 반경이 녹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센스 갑 플레이어”라고 칭찬한 것 이어 문세운과 김동현에 대해서는 “김동현과 문세운이 주고 받는 대화에서 이들의 순수미가 뽐내져 나온다. 둘의 희한한 케미가 웃음 포인트”라고 전했다.

또한 헤리, 카, 한해는 독보적인 센스를 발휘, 노래 받아쓰기 미션 수행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작진은 “헤리는 오랜만의 예능 출연임에도 어찌까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120% 이해한 멘트와 액션을 보였다”고 밝힌 것. 또한 카에 대해서는 “뽐뽐한 머리가 뽐뽐한 미소를 주는 짧은 시간 목작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다. 그가 설명하는 아이돌 생활의 경향이 이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한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트와 마디 파악, 깔끔한 피선으로 이 미션에서 에이스로 떠올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봄에 대해서도 “일곱 멤버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했는데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풀어주더라. 내공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tvN 새 주말 버라이어티 ‘놀라운 토요일’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음력 2월 19일)



▶**쥐** 마음에 장벽이 있어 의욕을 잃기 쉽다. 새로운 것도 전하는 것도 좋겠다. 지나친 투자를 삼가라. 동업은 금물이다. 사, 오, 흥 성씨는 자신감을 가질 때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하루 아침에 모두를 성취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서서히 운이 열린다.



▶**곰** 우월감을 버리고, 좀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주변 유혹이 많다. 가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나, 바, 오 성씨는 내 위치를 지켜야 한다. 뱀, 양, 원숭이, 돼지띠 눈치를 살피다 불안할 듯. 옛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을 지속해서 추진하라.



▶**고양이** 그, 사, 오 성씨는 하는 일이 무엇인든 신중히 처리하고, 본인 적성에도 연관해 생각하라. 주머니에 적게 들어와도 직장을 변동하면 안 된다. 나, 오, 11월생은 연인과 더욱 더러운 애정을 갖도록 노력하되 부담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쪽이 길하다.



▶**토끼** 4, 5, 11월생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더 크겠다. 직장은 승진 심사 과정에 든다. 늦은 시간 운전할 때 조심하라. 차분히 내일 있게 할 때다. 결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성사가 어려울 듯.



▶**원숭이**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처럼 시작할 때 신중히 처리하라. 우비무한 자제가 좋겠다. 의료업자는 재미도 없고, 운도 없다. 판매직 종사자는 골치가 아프구나. 그, 바, 오, 흥 성씨에게 신경 쓰라. 나, 2, 5월생 애정에 연연하지 말 것.



▶**뱀** 생각대로 안 되니 답답할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크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냉각수 없는 격. 그, 오, 자 성씨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동하지 않음이 좋을 듯. 나, 4, 6월생은 검은색 의복은 되도록 피해야 흉운을 막는다. 투기는 절대 금지.



▶**말** 혼자 힘이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쏘, 뽐, 닭피에게 힘을 빌리라. 그러면 풀린다.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꺼내놓고 얘기에 합의점을 찾을 것. 집안 우환은 북쪽이나 남쪽 약을 쓰면 효험이 있겠다.



▶**양** 고달픈 일들이 서서히 풀릴 듯. 토끼, 양, 닭띠와 힘을 합하면 안 될 일 없겠으나 마음은 답답하겠다. 남의 것을 끌어 쓰려 하지 말고, 한 발짝 더 뛰어 앞으로 대항하는 것이 좋을 듯. 나, 2, 5월생 집 나간 자식 걱정이 태산이지만, 본인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원숭이** 하던 일을 관두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격. 2, 8, 10, 12월생 우물을 파려만 한 곳만 파라. 그, 사, 흥 성씨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결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으로 화합의 장을 열라. 남쪽에서 귀인이 기다린다.



▶**새** 분주하게 바쁜 그, 사, 오 성씨는 심성은 착하나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끈기가 없고, 계획성이 약한 것이 흠이다. 2, 3, 6월생 애정적으로 갈등이 심할 듯. 슬기롭게 지혜로써 소, 용, 양띠와 화합하면 좋다. 검은색은 피하고, 따뜻한 온기의 색을 가까이하라.



▶**돼지** 생각지 않던 일들이 순간순간 단치고 있으니 흐름을 잘 포착해 결정하라. 나, 5, 8, 10월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 탓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뱀, 양, 말, 개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열쇠는 멀리서 찾지 말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돼지** 사, 오, 흥 성씨 동업자와 의견 충돌로 심각한 관계가 형성할 듯. 뱀, 토끼, 닭, 돼지띠 도움이 필요하다. 북쪽에 귀인이 있다. 현재의 힘도 충실히 다져가면 대성할 수다. 나, 5, 8, 9월생 파란색 의복이 행운을 줄 테니 가까이하라.